



12면
전북 거리극축제 참여 시·군 선정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음 2월 2일) 제32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위한 전북도-도내 대학 공동 대응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왼쪽부터)와 박진배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춘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7개 대학총장들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 선정 공동 대응

도-전북지역대학총장협-지역전문대총장협

RISE 시범사업 선정 위해 3자간 뜻 모아

김 지사 "지역발전 위해 함께 혁신해 나가자"

전북도와 도내 대학이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라이즈 구축을 위한 도-대학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날 중 선정될 교육부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학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자체와 도내 대학을 대표해 김관영 지사와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인 전주대 박진배 총장,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인 전북과 학대학 이영춘 총장 등이 서명했다.

또한, 이장호 군산대 총장, 원광대 박성태 총장, 우석대 남천현 총장, 호원대 강희성 총장, 예수대 김찬기 총

장, 군산간호대 강상진 총장,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전북대 양규혁 교무처장 등이 참석해 협약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 △도내 대학협의회는 전북도의 RISE 시범지역 선정 신청에 적극 지지와 공동 대응, △전북도는 도내 대학의 혁신에 필요한 관련 행정 지원 및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노력, △도내 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교육의 혁신 및 핵심 과제 추진 공동 노력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라이즈 시범지역을 공모 중인 시점에서, 도내 대

학이 전북도의 라이즈 공모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뜻을 한데 모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교육부가 시범지역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자체의 의지를 불 계획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도내 대학의 라이즈 추진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늦었지만 라이즈는 앞서가야 한다"며, "라이즈를 통해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인재양성-기업 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인구감소 및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도와 대학이 함께 혁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모 마감일인 21일 라이즈 공모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기업애로 해소 역량 집중

김관영 도지사, 1기업-1공무원 전담 추진상황 발표

2개월여만에 애로사항 430건 접수... 138건 해결

"지난 12월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공무원 500명이 현장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청 공무원들은 앞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해소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9면>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바쁜 일정으로 방문시기를 늦추거나 방문을 거절한 기업도 있었지만,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기업을 방문하여 430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430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기업애로해소 TF총괄단장으로 기업애로해소 지원단 전직원, 34개 처리부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면밀히 검토해 최우선 처리했다.

그 결과 새만금산단에 투자하는 성

일하이텍의 전력 수급문제를 비롯해 기업의 원료수급 애로 해소, 산단내 불법투기 및 주차불편 해소 공장시설을 위한 부지 정보 제공 등 138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토로한 자금과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협업,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포함한 각종 정책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및 업종 특성상 인력난을 호소한 기업들에게는 전북 일자리센터에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해 구인 컨설팅 및 알선 추진하는 등 채용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생존을 위해 다양한 혁신노력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규제나 애로사항이 현장에 있다"며 "현장에서 울리는 생생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 생활 안심하세요'

도, 군 북부자 상해보험 지원

전북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선 8기들어 첫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군 북부자 지역 청년에게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도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이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별보험료 없이 군복무를 시작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질병입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금, 외상성절단·진단금, 정신질환위로금, 전유수술비, 골절·화상위로금 등이다.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 전화 070-4038-1655, 팩스 070-4738-8556)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국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오늘부터 이틀간 관할 구·시·군 선관위 통해 접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통해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각 조합별 후보자 기호는 22일 오후 6시 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최종 등록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www.r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마감일 다음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28일 최종 확정되는 조합장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 누구든지 22일부터 25일 사이 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확정되기 전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권이 올라갔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